

## 제1호 6.25 참전 자유의 학도병상 영천에 건립한다

26일(토) 오후 2시 정각삼거리



1950년 8월 29일, 6.25 당시 영천(신녕)전투에서 아군의 학도병 3명이 문재인(당시 북한군 상위)을 전쟁포로로 생포한 날이다. 이 같은 사실을 현재 생존 학도병(윤월스님)이 생생하게 증언해 전국이 문재인 출생의 비밀로 청와대는 물론 정치권의 핫 이슈로 떠올라 돌아오는 대선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예정이다.

6.25 당시 영천은 철곡 다부동-안강-포항(장사) 등과 낙동강 최후의 방어선(맥아더 위크라인)으로 북한의 총공세를 막아 북진의 발판을 만든 호국의 성지다. 당시 참전 학도병 숫자는 5만여명(국방부, 약28,000여명). 국군의 열세로 조국이 풍전등화의 기로일때 학도병들은 책·연필 대신 총 한자루로 전쟁에 뛰어들어 총알받이가 됐다. 10대인 그들은 훈련도 군번도 철모도 없이 교복과 학생모로 오직 나라를 위한 애국심에 기꺼이 목숨을 헌신한 우리의 영웅이다.

지난 2012년 경상북도 김관용 지사가 전국 최초로 6.25 전쟁의 교훈과 학도병 명예선양을 위해 학도병의 증언을 담은 『나라를 구한 영웅, 학도병』 책자를 발간하고 그들의 업적을 기려 왔지만 당시 심대 후반의 소녀·소년이었던 생존 학도병들은 이제 모두 90세 전후의 고령을



1950년 8월 29일, 보현산전투서 학도병(3명) 문용형 생포 기념 영천을 호국성지로 만든다... 학도병상-3사관학교-호국원

맞아 아쉽게도 생존자는 찾기조차 어렵다.

국가는 아직도 이런 학도병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 등 정규군 6.25 참전용사에 비해 푸대접해 오고 있다. 영화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이 스크린에 올라오기까지 우리는 그들을 70년 세월 동안 기억조차 하지 못하다 생존 학도병 윤월스님의 증언으로 이제서야 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찾는 일에 첫 발을 내딛고 나라지킴이 고교연합(회장 민계식, 전 현대중공업회장)의 후원으로 (주)뉴스타운 부설 학도병기념사업회와 본지(주,영천신문)가 앞장섰다.

당초 이 학도병상은 국립영천호국원 앞 영천전투호국기념관 전정에 설치해 지난 19일 제막식을 가지려 했지만 영천시(시장 최기문)가 명분없이 설치신청서(5월14일 신청서 접수)→17일 신청서 반려→28일 신청서 재접수→6월7일 재반려)를 반려해

사실상 설치를 거부당했다. 반려 사유는 조례(영천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한 다음 설치신청을 하라는 것. 앞서 영천시는 조례 없이도 지역 로타리클럽의 조형물과 시민회관 앞 위안부 소녀상은 설치를 허가한 바 있다.

조례는 6월 8일 시행됐다. 현재 본지가 주관하고 있는 자유의 학도병상 건립 신청서는 지난 8일 조례가 시행된 관계로 세번째 신청서가 접수돼 있지만 당초 호국보훈의 달 제막식 행사가 어렵게 돼 부득이 개인 사부지(보현산 입구 정각삼거리)에 임시로 설치하게 됐다.

이날 개막식에는 전국에서 생존 학도병 윤월스님(증언), 심상은 6.25 참전소년소녀학도병 전우회장, 이용연 태백시 학도병회장, 손दै의 학도의용군 포항지회장, 민계식 나라지킴이고교연합회장 등 100여명의 애국 우파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지역에서는 코로나19 거리두기

###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 본지 필진 합류

최원일 <사진> 전 천안함 함장(예비역 대령)이 특별기고로 본지 필진에 합류했다.

따라서 본지 전속 필진은 △부산 외국어대 명예교수 김문길 박사, △소설가 김유미 작가, △계명대 박노광 경제학 박사, △세무회계 바로 윤희민 세무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 김섭 대표변호사, △권순환 동아일보 전 논설위원, △미국 워싱턴 이인택 변호사, △조우석 전KBS이사(뉴스타운 정치평론),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예비역 대령) 등 9명으로 늘었다. 최 전 함장은 2010년 3월 26일 서해에서 작전 중이던 우리 초계함이 북한 잠수정으로부터 기습 공격을 받아 46위의 천안함 용사들이 순직한 당시 초계함 함장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천안함 피격 사건 음모론에 맞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근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유일한 예비역 해군 장교다.

최원일 전 함장과 유가족회는 지난 4월 11일 정부서울청사 입구에서 천안함 명예회복을 위한 국민 감사 청구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2008년 천안함 함장으로 부임해 탑승인원 100명이 넘는 초계



함 총 지휘관이 다. 그러던 중 2010년 3월 26일 당시 중령이던 최 함장은 평소 작전 중 북한 잠수정의 기습 공격으로 부하 46명을 순식간에 잃었다.

그러나 북한의 소행을 부정하는 세력들의 좌초설·미군함 충돌설 등 온갖 음모론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남북 관계를 앞세운 현 정부는 피격 사건을 '우발적 사건,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 전 함장은 "대통령 직속기관 규명위가 지난 7개월간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시도했다"며 호국영령의 천안함 46용사들을 7개월간 의문사로 만들어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다"며 국민 감사 청구 서명운동을 펼쳤다.

최 전 함장과 유가족회는 지난 5월 21일까지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서명운동을 마치고 이날 본지에 그동안의 회고를 밝혀왔다. 그는 천안함 명예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본지에 특별기고를 계속한다.

<3면에 특별기고>

를 감안해 이만희 국회의원(영천-청도), 조영제 영천시의회 의장, 이홍우 6.25참전유공자회장, 시도의원, 사회단체장 및 시민 등 30여명만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최기문 영천시장은 초청을 거부해 불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날 정각삼거리에서 자유의 학도병상 제막식 후 포항 해병전우회 회원 주도로 오후 5시 30분부터 차량 30여대가 영천시내 일원 나라사랑 카퍼레이드 행사도 열릴 계획이다. <초청장=12면 전면광고> 장지수 기자

# 수덕에식장

# 임대

"수덕출장뷔페 & 도시락" 사업은 계속합니다

**병·의원 1·3층**  
**특별우대 분할가능**

**1층 약국 / 2층 당안신내과**  
**입점 확정**

문의 전화 **010-3809-7100**

# 경북, 백신 접종 후 사망신고 급증...16일에만 4건

## 영천시, 80대 남성 화이자 접종 후 21일만인 지난 11일 숨져

경상북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사망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지역 사망자(6월 17일 0시 기준)는 경산이 29명으로 가장 많고 청도(14), 경주(10), 봉화(8), 포항·구미·김천이 각 5명, 영천시·칠곡·예천이 각각 2명 등 지금까지

지 모두 86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7일 경북도에 따르면 16일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4건의 사망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전남 남해군에 주소를 둔 60대 A씨는 자녀가 거주하는 경북 칠곡군

에서 지난 10일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받고 15일 가슴이 답답하다는 호소와 함께 숨을 쉴 수가 없다며 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지난 16일 숨졌다.

경북 영천시 B씨(80대, 남성)는 5월 21일 화이자를 접종받고 3~4일

후 구토 증세 등으로 3차례 구급차로 병원 이송을 반복하다 지난 11일 숨졌고, 안동의 80대 남성 C씨는 지난 3월 30일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받은 후 곧바로 38도 이상의 고열에 시달리며 4월 7일 병원에서 폐부종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져 같은 달 13일 유명을 달리했다.

또 경주시 80대 여성 D씨는 지난 4월 30일과 5월 22일 1,2차로 화이자

접종을 받은 후 같은 달 29일 호흡곤란, 구토 등의 증상 후 다음날 사망했다.

경북에서는 지난 15일 3명, 16일 2명에 이어 17일 4명 등 백신접종 후 사망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16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시도별 누적 1차 접종자 수는 경기도가 299만1406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 243만7955명, 부산 95만8173명, 경남 86만7913명 등이다. 대상자별 접종률로는 전남이 80.8%로 가장 높다.

장지수 기자

# 영천 A군부대 사격 훈련 중 가정집에 총탄 날아들어 큰일 날 뻔

## 군당국 논란 일자 "사격장 폐쇄 검토, 국가배상법 최대 보상 지원할 것"

영천시 A군부대 사격 훈련 과정에서 총탄이 가정집으로 날아들어(추정) 하마터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한데다 가정집 유리창이 파손되는 사고가 뒤늦게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군부대는 깨진 유리창만 보상하고 정신적 피해보상은 해줄 수 없다고 한 사실이 알려져 피

해가족에 대한 군 당국의 미흡한 대처가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10일 영천시와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 모 부대는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양일간 병사들을 대상으로 한 사격 훈련 도중 K-2 소총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탄두가 2km 정도 떨어진 고경면 대의리에 있는 가정집 유리창을 깨고 집안으로 날아들었다.

이런 사실은 집주인이 탄두를 발견해 해당 부대에 신고하면서 확인됐다. 집주인 A씨는 "사격 훈련 첫날

낮 시간대에 어디선가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를 듣기는 했으나 그냥 지나쳤고 다음날 집안을 살펴보다 이런 사실을 발견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해당 부대의 사격 훈련을 중지시키는 한편, 사고 조사와 함께 보상 협의에 나섰으나 '물질적 보상은 가능하나 정신적 보상은 규정에 없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가족의 반발이 커지자 '국가배상

법 절차에 맞춰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상황이다.

상급부대인 육군 군수사령부 관계자는 "발견된 탄두는 국방과학연구소에 보내 감정 조사를 하고 있으며 해당 부대 사격장은 안전점검을 통해 폐쇄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피해가족에 대해선 사고와 함께 국가배상법에서 규정한 최대한의 보상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지수 기자

# 영천시, 현직 공무원 A씨 이틀 휴가 뒤 원룸서 목매 숨져 또 공사(발주) 40대 인부 부러진 전신주 깔려 숨져

## 영천시, 설치 21년된 전주 무단 사용, 현장서 공무원(감독) 보고도 말리지 않아

영천시청 공무원이 목매 숨졌는가 하면 같은 부서 사업과 관련해 민간인 1명도 공사도중 전신주에 깔려 숨지는 등 잇따른 두 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해 해당 부서가 혼란에 빠졌다.

▶17일 오전 10시께 영천시 도시건설국 산하 한 부서 현직 공무원 A씨(37)가 자신의 원룸에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이날 동료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영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숨진 A씨는 15일과 16일 양일간 특별휴가를 마치고 이날 근무에 복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출근시간이 늦어져 이를 이상하게 여긴 동료 직원이 시청 인근에 있는 원룸을 찾았다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유족과 주변 지인 등을 상대로 숨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또 해당 부서는 지난 15일 오후 3시 31분께 영천시 청동면에서 통신 시설을 설치하던 40대 작업인부 B씨가 전신주가 부러지면서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는 이날 전신주에 올라가 재난방송용 스피커를 설치하던 중 갑자기

전신주가 부러져 넘어진 전신주와 차량 천장 사이에 깔려 중상을 입어 긴급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지난 21일 한전측과 안전관리공단, 영천경찰서, 유족측이 현장에서 부러진 전신주를 감식하는 과정에서 내부 철선이 이미 부식돼 있는 등 21년 이상 노후화된 전신주로 드러났다. 특히 영천시가 안전재난 방재용 스피커 설치공사를 하면서도 한전에 전신주 사용 신고조차 하지 않고 무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유족측은 "사고 책임이 영천시에 있다"는 주장이다.

장지수 기자

# “과태료 최대 100만원 안 물려면” 내달 1일부터 전월세신고 의무

보증금 6,000만원, 월차임 30만원 초과 30일 이내 지자체에 미신고 4만~최대 100만원 허위신고 100만원 과태료

주택임대차3법 전월세신고제가 오는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따라서 앞으로 보증금 6,000만원, 월차임 30만원 초과 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은 확정 30일 이내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된다. 만일 허

위 및 미신고는 4만원~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천시는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주택임대차신고제) 시행을 알렸다. 과태료 부과는 신규제도 시행에 따

라 적용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계도 기간을 둘 예정이다.

신고 항목은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주소·면적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계약내용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여부 등이다. 신고는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rtms.molit.go.kr)에서 하면 된다.

신고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했다.

청도~밀양간 국도(28호) 건설현장 중장비 8m 낭떠러지 추락 1명 현장서 사망

청도 저스트저널 김성도 기자

지난달 31일 오전 9시 13분께 청도읍 신도리 청도~밀양간 국도 25호선 건설현장에서 로드롤러 장비가 추락해 전복되면서 운전자 A씨가 장비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60대)는 D건설 업체로 이날 운행중 공사현장 아래 8m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졌다. 로드롤러 장비 무게는 약 10t 정도며, 현재 경찰은 추락원인을 조사 중이다.

청도소방서는 “긴급 출동해 포크레인으로 뒤집힌 로드롤러를 바로 세운 후 운전자 A씨의 사망을 확인하고 경찰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이날 사고 현장은 비가 온 뒤라 공사 중지 상황에서 장비를 왜 움직였는지 조사중이다. 일각에선 후진을 하다가 난 사고로 추정하고 있으며 A씨는 중장비 기사이면서 D건설 대표로 알려졌다.

청도경찰서 관계자는 “정확한 사망한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면서 “음주 여부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도군 관계자는 이날 “사고 현장에 부직포를 사용해 청도천으로 기름이 흘러가지는 않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현재 A씨의 시신은 청도 대남 병원으로 후송 조치됐다.



# 이만희 의원, 국가유공자 등 「의료복지 지원법안」 대표발의

### 생활 어려운 국가유공자 진료비·약제비 전액 면제 추진



앞으로 국가유공자 등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유공자들이 병원 치료와 관련해 진료비와 약제비 등을 전액 면제받을 길이 열렸다.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청도·사진)은 지난 25일 이같이 밝히

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복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4건의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국가유공자 등은 보훈병원 및 국가가 지정한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등은 전액 또는 감면받고 있다. 하지만 약제비는 의료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지속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약제비용 부담이 매우 크다.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에는 의료비 경감을 위한 약제비 지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돼 왔다.

또 점차 고령화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의료지원 확대가 절실했던 부분이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계가 곤란한 국가유공자 등은 진료비와 약제비 전액을 면제함으로써 국가에 헌신한 분들의 삶이 영예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만희 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 그에 걸맞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적 책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약제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생활수준이 어려운 분들에게 진료비와 약제비를 전액 면제하도록 해, 국가유공자 등이 의료기관에서 충분한 진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복지를 확대해 나가려는 것”이라며 이번 지원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

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감사와 존경이 함께 하는 따뜻한 우리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된 4개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만희 의원을 비롯해 윤한홍, 김선교, 정점식, 임이자, 송석준, 지성호, 한무경, 김정재, 권성동, 권명호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장지수 기자

## 청도군,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속도전 장려상



경북 청도군이 일자리 창출로 경북도로부터 고용위기 극복을 인정받아 상금 100만원을 받았다.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지난 4일 경상북도에서 실시한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속도전 평가’에서 2021년 1분기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신속추진성과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생활

환경 방역과 미취업 청년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한 행정인턴 채용 등을 추진했고, 그 결과 1분기 채용목표 105명 대비 116명을 채용하는 실적을 거두어 이같은 수상을 받았다.

이승율 군수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도움이 될 수 있어 다행하며, 현장 소통을 통해 지역친화적인 좋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독도 영토주권 강화에 ‘독도재단-라쉬반코리아’ 힘 모은다



우측부터 송경창 한동해지역본부장, 라쉬반코리아 백경수 대표, 독도재단 신순식 사무총장

(재)독도재단과 (주)라쉬반코리아는 21일 독도 영토주권 강화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독도재단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 송경창 경상북도 한동해지역본부장(독도재단 부이사장), 신순식 독도재단 사무총장, 백경수 (주)라쉬반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재단과 라쉬반코리아는 △독도의 영토 주권 확립과 독도 수호 의식 고취를 위한 협력, △국내·외 독도 홍보 활성화 방안 공동 모색 및 교류 협력, △그 밖에 독도 영토주권 강화를 위해 필요한 분야 협력 등 독도 홍보를 위해 힘을 모은다.

특히 라쉬반코리아는 독도 마스크를 출시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독도

홍보를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독도재단 신순식 사무총장은 “라쉬반코리아가 독도 영토주권 강화 및 홍보를 위해 참신한 아이디어로 활동하길” 기대하고 있다.

라쉬반코리아 백경수 대표는 “우리 독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증대시켜 확고한 독도수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최원일 특별기고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 (예비역 대령)

### "청와대·국방부가 규명위와 동조했나?"

#### 국민감사청구 서명운동을 마치며

천안함 재조사를 시도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규명위)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도 한달이 되어간다. 재조사 접수에서 결정, 각하에 이르기까지 명백한 불법행위가 자행되었음에도 청와대와 정부가 정확한 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하지 않아 이렇게까지 국민감사청구를 하게 되었다. 감사청구에 앞서 지난 재조사 사건부터 현재까지의 상황들을 정리해 본다. <필자 주>

지난해 9월 대통령 직속기관인 규명위가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재조사 시도로 인해 호국영령인 천안함 46용사들을 7개월

간 의문사로 만들어 전사자는 물론, 유족과 생존장병들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다.

확인결과, 재조사 진정인은 천안함 좌초설과 이스라엘 잠수함 충돌설 등 음모론을 제기해 국방부와 해군에 의해 명예훼손으로 고발되어 피고소인 신분으로 재판 중인 사람이었다. 규명위는 이런 천안함 음모론자와 공모하여 재조사 개시를 결정하였고, 내부 고위직에 음모론자가 있었으며 청와대와 국방부는 사실상 이를 방임했다.

현재까지 청와대와 정부는 지난 4월20일 규명위원장이 사퇴를 표명한 것으로 현 상황을 마무리하려 하고, 유가족과 생존장병들이 요구한 관련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답변은 전혀 없는 상태다.

특히, 규명위원장은 사퇴 성명서에서 “위원회의 조사개시 과정이 법과 규정에 따른 절차라는 이유로 유가족들의 뜻을 세밀하게 확인하지 못하였으며”라고 했다. 이는 법과 절차에 문제가 없으나 자신이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다.

4월1일 규명위에 유족과 생존장병이 항의 방문하자 바로 다음날인 4월2일 '각하' 결정을 내리더니 4월6일 유족회장과 필자가 청와대에 항의 방문했을 때 행정관이 나와 규명위는 독립기관이라 청와대에서 개입을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계속해서 논란이 일자 4월19일 밤 규명위원장을 청와대로 호출했고 다음 날 사퇴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다.

또한 4월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방부장관은 음모론자에 대한 국회의원의 질문에 “민군합동조사단의 발표를 믿지 않는 저 희로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다음날 음모론자가 “어뢰 인양 발표는 거짓”이라고 당시 국방부 조사단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아무 대응도 대책도 없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 우리는 청와대와 국방부가 규명위와 동조하고 있고 천안함 음모론자들에 대해 방임을 넘

어 비호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에 유가족과 생존장병들은 지난 4월20일부터 매일 아침 국방부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오전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시위와 서명운동을 이어나갔다. 많은 국민이 현장과 온라인으로 서명에 참여해 주셨고 최소 서명 조건인 300명을 훌쩍 넘어 수천명에 이르르게 되었다. 비가 오고 더운 날씨에도 굴하지 않고 참석해 주신 유가족분들과 생존장병, 자원봉사자 분들, 서명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연차를 내어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시위와 서명운동에 지원 봉사해 주신 분들과 “국민이 죄송합니다”라고 하시며 시원한 음료를 주신 분들, 감사패를 만들어 오신 분,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생존장병 치료비를 지원해 주신 분 등 여러 방법으로 격려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쉬운 점은 천안함 초대함장인 예비역 제독 한분을 제외하고 고위층 예비역 군인들의 참여는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비록 감사청구로 서명운동은 종료할 것이나 청와대와 국방부의 명확한 입장과 재발 방지 대책이 나올 때까지 1인시위는 언제까지 계속할 각오다. 호국보훈의 달이 다가오고 있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국방부장관이 국방위원회에서 말씀한 “저희로선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지 않길 기대해 본다.

# 분만산부인과 출산 과정서 신생아 사망... 영천시 쉬쉬 했나

최기문 시장 공약1호 J병원 (분만산부인과) 사고 후 언론 보도 없어



10개월 동안 품었다가 출산과정에서 내 아이가 사망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축복을 받을 일이 신생아 사망사고로 이어진다면 의료사고 논란과 보상 등 후속조치 보다

는 당장 분노와 슬픔이 앞서게 된다. 지난 5월 26일 오전 영천시 한 산부인과(분만)에서 출산 과정중 긴급 사태가 발생해 대구 대형병원으로 옮겼지만 산모는 희생하고, 신생아는 사망한 사건이 뒤늦게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병원 분만산부인과는 지역의 열악한 분만 환경 개선을 위한 최기문 영천시장 공약 1호사업이다. 설립당시 28억원의 보조금과 개원 후 40년간 매년 5억원씩 인건비가 지원되며, 산모에게는 분만과 관련해 약 80~100만원의 분만 지원비 등 보조금이 지급된다. 때문에 영천시와 보건소가 쉬쉬해온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당초 분만산부인과 유지가 지역

영업환경 악화로 무리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당초 계약 진료과목인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산후조리원 외 피부·미용, 통증클리닉, 내과, 물리치료실 등이 추가돼 국·도·시비가 산후조리원(등)을 명분으로 피부·미용업에 이용되는것 아니냐는 의혹이 지역 일부 병의원 간에서도 제기된바 있다. 또 병원은 개원 전부터 불법 건축으로 원상 복구 명령을 받는 등 비도덕적 행위도 일삼았다. 이런 가운데 이번 신생아 사망사고 원인이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자칫 병원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확인될 경우 병원 운영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병원 관계자는 "우리 병원의 사실이 아니다"는 답변을 해왔다. 그러나 관계자 등 취재를 종합해보면 분만 당일 4명의 산모 출산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날 오전 8시 이전에 3명은 출산을 완료하고 4번째 출산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또 해당 의사는 이날이 퇴직을 위한 마지막 근무일로 네번째 출산이 자신의 마지막 업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피해자 측 관계자 등의 전언에 따르면 "산모가 출산 환경이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서 병원측이 서둘러 출산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지적이 취재결과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한편, 병원측은 "당초 신생아의 건

강 상태와 기저질병 등을 고려해야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면서도 "피해자 가족측과 피해보상을 위해 원만하게 협의 중이다. 현재 의료배상책임보험 전문가 진단을 의뢰해 놓고 있었다"고 밝혔다. 반면 피해자 측과는 본지와 연락이 단절되어 현재의 의견을 들을 수 없었다. 병원은 지난해 9월 개원해 현재까지 지역 80여명의 산모가 분만한 것으로 알려져 한달 평균 8명의 신생아가 태어난 것으로 추재됐다. 영천시 한 달 평균 신생아 탄생 숫자는 50여명으로 지역 산모 약 16% 미만이 J병원에서 분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지수 기자

# 떠난 보잉MRO센터에 의료기기(부품) 제조업체(대일정공) 등지 튼다



(주)대일정공 & 영천시 MOU 10억 투자, 25명 고용 의료기기부품 생산 서울 소재 (주)대일정공(대표 박중범)이 의료기기부품 제조라인 구축을 위해 지난 달 20일 영천시와 10억원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영천시가 밝혔다.<사진>

영천시 기업유치과에 따르면 (주)대일정공은 영천시에서 떠난 항공 MRO센터를 영천시로부터 임차해 오는 7월부터 2024년까지 10억원을 투자하고, 25명을 고용해 의료기기 부품인 카테터샤프트를 제조한다는 것이다.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에 위치한 (주)대일정공은 연매출 334억원(2020년), 종업원 136명으로 1999년

설립한 의료기기부품 제조업체다. 특히 이번 투자로 제조하게될 '카테터샤프트'는 그동안 해외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정밀의료부품으로 국산화 제품 개발을 위해 영천바이오메디컬생산기술센터(bmtc)와 기술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한 것으로 제품 국산화를 위한 시제품생산이다. 또 샤프트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에 납품할 계획이며, (주)대일정공

은 이번 투자 후 영천하이테크파크 지구 조성이 완료되면 지구 내 입주를 통해 사업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영천시가 전했다. 영천시는 "이번 투자유치가 지역 고용창출과 더불어 4차 산업 바이오메디컬 분야 활력을 도모하고 영천시가 의료부품 중재시설 제조분야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청도] 밀양박씨 문중, 선암서원 300년 소나무 불법판매

말썽일자 야밤에 반쯤 소동 돌아오지 못한 한 그루는 어디? 소나무 매입 'L회장' "심는 중 부러져 불태웠다" 해명에 그을린 토막 발견

[청도 저스트저널=김도성 기자]



경북 청도군 '선암서원' 뒷편 약 300년(추정) 대형 소나무 2그루를 '밀양박씨 문중'에서 '불법판매'한 후 말썽이 일자 되돌려 받는 과정에서 고가로 추정되는 한 그루는 끝내 사라진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21일 경북 청도군 금천면 신지리 밀양박씨 '선암서원'에는 문중측(총무)이 야밤을 틈타 논란이 된 소나무 두 그루를 반입해 이식작업을 하고 있었지만 고가로 추정되는 한 그루는 결국 돌아오지 못했다. 이날 반쯤 이식 현장에는 당초 소나무를 매입했던 L회장(경산)과 조경업자는 보이지 않고 문중 총무만

입회했다. 현장에서 해당 총무는 "돈을 받고 소나무를 팔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본지 취재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가격은 몰라도 된다"며 답변했지만 수천만원을 받고 팔려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소나무를 불법으로 판매하려 한다는 사실을 문중 내 일부에서도 알고 있었다. 문중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반대'를 했음에도 '문중 회의'에서 결정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문화재 구역 반경 500m 내는 범상 형질변경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마저도 무시한 채 문중 소유의 재산이라 여기고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중은 말썽이 일자 뒤늦게 "원상복구하겠다"고 밝혔다. 총무는 또 "우리는 밤잠 안 자고 소나무를 시간 업자와 싸워가며 근근이 이려고 있는데 카메라 들고 떡하니 와 있는 걸 보니 내 마음이 그렇다"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 많은 잘못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지난 17일 총무는 "문중에서 다 통과된 것"이라며 "문화재도 우리 사유재산이고, 이 주위의 소나무고 뭐고 다 우리 사유재산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300년으로 추정되는 소나무 2그루를 '밀양박씨 문중'으로부터 매입했다는 '경산 L회장'의 소나무 농장을 찾아갔다. 한쪽 구석에 '불에 그을린 소나무 토막'이 발견됐다. 지난 20일과 22일에도 있었

으며, 23일에도 그대로 있었다. 문제는 나머지 1그루가 어디로 갔느냐. 농장주 'L회장'의 전화는 꺼져 있는 상태로 전화를 받지 않아 연락을 취할 수 없었다. 일각에 따르면 '밀양박씨 문중'으로부터 소나무를 매입한 후 'L회장'의 소나무 농장에서 "심는 작업 중 소나무가 부러져 불태웠다"는 말도 나온다. 또 "애시당초 현재 돌아온 소나무만 'L회장'의 소나무 농장으로 갖고, 돌아오지 않고 있는 소나무 1그루는 다른 곳에 이미 팔려 갔거나, 'L회장' 제2의 소나무 농장으로 옮겼다"는 후문이 여기저기서 확인된다. 청도군 산림경제과는 21일 "훼손된 소나무는 지목이 임(林)인지 전(田)인지 측량을 해봐야 결정할 수 있다. 전(田)일 경우 재선충 관련법으로만 처벌할 수 있어, 문화재 관련법은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해 사건 발생 4일이 지나도록 파악조차 않고 있었다. 반면 문화관광과는 "문중에서는 선암서원만 문화재인 줄 알았다고 시인했다"며 "청도경찰서에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한편, 소나무 가격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다. 문중 등과 일각에서는 7000만 원에 팔렸다는 소문이 있는가 하면, 1억 4000만 원을 받았는데 문중에는 7000만 원이라고만 밝히고, 나머지 7000만 원은 챙겼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다.



# 농어촌공 영천지사, 농촌돕기 '구슬땀'

6월 중순부터 지역 마늘농사 수확기에 들어갔다. 앞서 5월초에는 과일 속기가 절정을 이뤘던 가락이나 코로나19 등으로 지역 농민들은 일손부족으로 받을 동동 굴렀다. 이런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도 농촌 일손돕기에 나서면서 공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농어촌공 영천지사는 지난 달 13일 코로나19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지역 과수농가를 찾아 부족한 농

촌일손을 보았다. 공사는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추천을 받아 자양면 신방리에 소재 복숭아 농가를 방문해 종일 과수 알숙기 작업을 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지역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농어촌공사 영천지사는 "지속적으로 현장 중심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듣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영천시, '인성교육관' 문 열어

신녕면 송계선생기념사업회 23일부터 매주 수·토요일

영천시가 지역 청소년과 시민들의 인성 및 정서함양에 순수 시비 8천만원을 투자했다. 영천시는 22일 신녕면 연정리에 위치한 영천시 유림재현관에 '인성교육관'을 개강해 오는 23일부터 매

주 수·토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4시간 동안 강좌를 연다고 밝혔다. 강의를 주관하는 송계선생 기념사업회는 "영천시민은 물론 수강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모든 강좌에 참가비 없이 참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관계로 선착순 35명까지 제한한다.

# 제66회 현충일 추념식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분들을 기억하자”

이철우 도지사, 영천호국원 산화한 호국영령들 닮아 기억 영천 충훈탑, 최기문 시장 이만희 의원, 조영제 의장 등 100여명 참석



‘제66회 현충일을 맞아 지난 6일 경북도와 영천시는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라는 주제로 국립영천호국원과 영천충훈탑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10시 정각 1분간 고개를 숙이면서 엄숙하게 거행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오전 10시 임종식 도교육감과 여운태 육군3사관학교장, 주요 기관장 및 보훈단체장, 보훈가족, 학생 등과 함께 충훈탑을 찾아 호국영령들을 추모했다.

영천시도 이날 같은 시각 마천산 충훈탑에서 최기문 영천시장과 이만희 국회의원, 조영제 영천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유족회, 미망인회, 보훈단체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동시사이렌에 맞추어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을 개최했다.

이철우 지사는 이날 추념사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분들을 기억하고 그 뜻을 계승하는 날이 돼 지

난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했듯이 우리 모두가 힘을 하나로 모아 대한민국의 도약과 번영의 미래를 경북의 이름으로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이철우 지사는 오후 2시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에서 열린 독립운동가 후손 3대 초청행사에 참석해 “6.25전쟁 당시 경상북도는 영덕, 포

항 기계, 경주 안강, 상주, 왜관, 다부동을 따라 구축된 낙동강방어선을 사수한 자유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다했다”며,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분들이 모든 시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예우 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오늘날 대한

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세계 속의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영면하신 호국영령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분들이 모든 시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예우 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이만희 의원도 앞서 지난 3일 국립현충원을 찾아 묘역에 태극기 및 무궁화 설치, 묘비세척 등 봉사활동을 하고 이날 추념식에서 “고귀한 목숨을 바쳐 지켜낸 자유대한민국의 소중한 가치가 더 이상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굳건한 마음으로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지수 기자

## 제59회 경북도민체전 순항, 각 시도 분산 개최

제59회 경북도민체육대회(이하 도체)가 지난 5일 영천에서 ‘태권도 대회’를 시작으로 9월말까지 경북도내 11개 시·군에서 28개 경기종목이 분산 개최된다. 지난 제58회 대회는 코로나19로 도민과 출전 선수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취소한 바 있다.

이번 도체는 감염병예방을 선제적으로 대응해 안전한 대회개최가 목적이다. 경북도는 각 경기종목별 세부 지침으로 대회 참가자 전원 코로나19 진단검사(PCR)를 확인해야 참

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도는 사전 참가등록, 경기시설 방역 및 소독, 방역용품 비치, 경기장 내 이동 동선 최소화, 의심환자 격리공간 마련, 방역담당자 지정, 단계별 거리두기 지침을 엄격히 관리한다.

한편, 영천시에서는 6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영천체육관에서 태권도대회가 열렸고, 12, 13일 이틀간 시범종목으로 승마 종목이 운주산마장에서, 궁도는 지난 19일과 20일 양일간 경산 삼성현정에서 열렸다. 육상

등은 7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영천시민운동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대회가 개최되는 만큼 도민과 선수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현장점검 등 철저한 방역 관리로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회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참가선수들이 대회기간뿐만 아니라 훈련 중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 영천시, 우수후계농업경영인 ‘도내 최다’ 선정

지난 21일 발표된 2021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에 영천시가 4년 연속 경북 도내 가장 많은 18명이 선정됐다고 영천시가 23일 밝혔다.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5년 이상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성실히 활동한 농업인을 선발하여 추가자금 융자를 통해 전문 농업경영인으로 육성하고자 매년 250~300명 규모로 선발하고, 올해 경상북도에서는

50명이 선발됐다.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발되면 농지구입, 농업용 시설 설치, 축사 신축 및 개보수, 농기계 구입, 가족임식 등을 위한 육성자금을 최대 2억원 한도로 연리 1%,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받는다.

최기문 시장은 “농업·농촌을 이끌 전문 농업인이 4년 연속 도내 최다 선정된 것은 지역 농업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 영천문화원 & 생활문화센터 2021년 하반기 문화강좌 수강 회원 모집

	월	화	수	목	금
오전	아코디언(정원 20명) 10:00~12:00	우리춤(정원 20명) 10:00~12:00	스포츠댄스(정원 20명) 10:00~12:00	단소(정원 20명) 10:00~12:00	차(茶)치유 시간 다도 (정원15명) 10:00~12:00 색소폰(정원15명) 10:00~12:00
		민화(정원15명) 10:00~12:00	하모니카(중급) (정원 20명) 10:00~12:00	낭만 가독 탭댄스 (정원15명) 10:00~12:00	
오후	보타니컬아트 (정원15명) 13:30~15:30	"설장구(정원 20명) 13:00~15:00"	난타(정원 20명) 14:00~16:00	정겨운 우리민요 (정원15명) 14:00~16:00	북춤(정원 20명) 14:00~16:00
	시조창(정원 20명) 14:00~16:00	대금(정원 20명) 14:00~16:00	서예교실(정원 20명) 18:30~20:30	서예교실(정원 20명) 18:30~20:30	
	오카리나(정원15명) 14:00~16:00	풍물(농악)(정원 20명) 15:00~17:00	풍물(농악)(정원 20명) 15:00~17:00	우리소리 가야금 (정원15명) 16:00~18:00	

- ▶ 수강기간 : 5개월 과정(7월 초 ~ 11월 말)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모집기간 : 6월 17일(목) ~ 모집 시까지 (선착순 마감) ※ 문화원 회원 우선 접수
- ▶ 접 수 : 전화 또는 방문 후 수강회비 입금 ▶ 접 수 처 : 영천문화원 사무국 ☎ 전화 334-3030, 팩스 334-4545)
- ▶ 수강회비 : 5개월 2만 5천원 / 문화원 회원 2만원 ▶ 강좌 개강 후에는 수강회비 반환되지 않으며, 수강 미달(10명) 강좌는 반환됩니다.

# 청도군, 하절기 민원복으로 갈아 입고 친절 대민봉사 강화



## 친절 대민봉사 강화

청도군(군수 이승율)이 여름 하절기부터 주민들과 민원인들에 대한 친절 대민봉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군은 지난 21일 민원실 직원들이 하절기를 맞아 새 민원복으로 갈아 입고 함박미소와 함께 친절다짐과 함께 대민봉사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주민들에게 한층

더 밝고 부드러운 이미지로 다가갈 수 있는 민원실을 만들겠다는 다짐이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새 민원복 착용으로 새로운 마음가짐과 분위기로

책임감을 갖고 소통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과 방문하고 싶은 민원실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외에도 군은 찾아가는 현장민

원실 운영, 비대면 양방향 마이크 설치, 수요일 야간 여권발급,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고객만족도 및 직원친절도 조사 폭넓은 민원시책을 펼치고 있다.

## 경북도의회, 조직개편 인사 단행

### 변화하는 의정환경 대응 의정지원담당관 신설 의원 역량 향상 기대

경상북도의회(의장 고우현)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 등 변화하는 의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의회사무처 인력 6명을 증원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개편 핵심은 의회사무처 의정활동 지원기 강화를 위한 인력 증원으로 기존 3담당관 117명에서 의정지원담당관 신설 등 4담당관 123명으로 개편한다. 따라서 전문위원실별 연구지원팀이 신설되고, 총무담당관실내 인사팀을, 의정지원담당관실내에는 역량개발팀이 새롭게 신설된다.

이를 위해 의회는 6월 10일부터 개최되는 제1차 정례회부터 업무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인력 재배치

와 사무공간을 마련해 각 상임위에 예결특위 전문위원실로 하여금 더 밀착되고 전문적 입법 활동 지원체제를 준비했다.

또 의정지원담당관(4급)을 비롯하여 역량개발팀을 신설해 의회차원의 자체교육연수 기능을 강화하고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연수 지원 등 도의원들의 의정능력 향상을 전담하게 되며, 의정활동을 도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소통해나가기 위한 공보팀 인력도 보강된다.

이번 개편과 관련해 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등을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인사팀을 신설하고 인사권 독립에 필요한 조례와 규칙 마련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다.

장지수 기자

## 이철우 도지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에 사활



이철우 도지사가 쉽없이 동서횡단 연결을 염원하고 있다. 국가 동서축 연결이야말로 말로 전남·북은 물론 충북과 경북지역 경제발전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에 든든한 기초가 된다는 이유다.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25일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충북(도지사 이시종), 충남(도지사 양승조)과 함께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건설을 정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신규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349.1km)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로서 충남(대산~예산~천안)에서 충북(청주)을 거쳐 경북(문경~점촌~영주~봉화~분천~울진)을 연결하여 서해안과 동해안을 가로지르는 노선으로 지난달 22일 한

국교통연구원에서 개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연구 공청회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분류돼 6월 말경 최종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이날 3개도 지사가 공동으로 국가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한편 충남·충북·경북 12개 지자체에서도 대통령 공약 이행 및 전 구간을 신규사업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중이다.

이번 건의문에는 신성장동력 창출의 원동력이 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를 국가계획 최종안에 신규사업으로 포함시켜,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촉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철우 도지사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동해안 관광벨트와 서해안 산업벨트를 연결하는 동서간 신성장벨트를 구축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농어민과 함께 농어촌을 위해!

**사랑은 내리사랑?**  
**이제 농지연금으로 올림사랑 하세요~**

인생의 굵이마다 자식 걱정 끝이 없던 우리 부모님  
이제껏 받아온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꼼꼼하게 따져보고 부모님께 농지연금을 선물하세요

**농지연금이란?**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는 제도로서 경작이나 임대로 인한 추가수익도 가능하고, '승계형' 가입 시 부부 모두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

-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5세 이상 농업인 / 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담·과수원으로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 영천시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 농촌 찾아 농작물 수확 구슬땀



고경면 행정복지센터

### 고경면 직원, 양파 수확 일손 보태

고경면 행정복지센터(면장 신해근) 직원들은 17일 농작물 수확 시기에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일손을 보탤다. 직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고경면 창하리 양파 밭을 찾아가 모두 작은 힘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양파 수확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 와중에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수칙 준수 등 코로나19 예방에도 신경 쓰며 일손 돕기를 진행했다.



영천시 남부동

### 영천시 남부동 직원, 양파농가 도와

영천시 남부동(동장 이민철) 직원 10여 명은 지난 14일 동동 양파농가를 찾아 일손을 보탤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과 고령화로 인력난이 심각한 농촌 현장을 찾아 무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양파 수확에 구슬땀을 흘렸다.



영천시 홍보전산실

### 영천시 홍보전산실, 2차 농촌일손 돕기 힘 모아

영천시 홍보전산실(실장 정기열)은 9일 본격적인 마늘 수확철을 맞아 청동면 계지리 마늘재배 농가를 방문해 농촌일손 돕기에 나섰다. 이날 직원 10명은 이른 아침부터 오후까지 1,603㎡(480평) 규모의 마늘밭에서 간단한 농작업 교육을 받은 후 마늘수확 작업을 실시했다.



환경보호과

### 환경보호과·산림과·상수도사업소·공원관리사업소, 농촌일손 도와

영천시 환경보호과는 지난 9일 본격적인 마늘 수확철을 맞아 신녕면 화남리 마늘재배 농가를 방문해 일손 돕기를 실시했다. 산림과 직원 20여 명도 8일, 10일 이틀간 임고면 양항리, 선원리에 있는 마늘 농가를 찾아 일손을 보탤다. 10일에는 상수도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가 10명씩 자양면, 남부동에 위치한 수확 작업이 한창인 마늘재배 농가 돕기에 나섰다.



상수도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 “소중한 나눔으로 따뜻한 세상을” 사랑으로 행복을 채웁니다



유석권 영천시새마을회 회장



영천시장로회(회장 조원제)



영천시향우회연합회(청년회장 조삼열)



재울현대자동차 영천향우회(회장 윤선희)



(주)디앤씨(대표 성기중)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영천시지회(지회장 김달환)



현대자동차 영천지점(부장 이종걸)



(사)대한노인회 영천시지회



신녕농업협동조합(조합장 이구권)

# 이철우 도지사가 매주 버스타는 이유... 행복 신품 도민 곁으로

“정치는 희망을 파는 일이고 행정은 눈물을 닦아주는 일”  
“체면은 중요하지 않다” 지역민의 하소연 정부에 전달  
‘경북형 거리두기’ 시범 실시 이끌어 내

정치는 희망을 파는 일이고 행정은 눈물을 닦아주는 일이라 했다. 국회의원 세 번 후 도지사로 일하면서 온몸으로 깨달은 대명제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로 민생경제는 무너지고 한숨이 깊어지는 지금,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 <사진 이철우 경북도지사>

지난 1월부터 도지사 직속으로 민생 살리기 특별본부를 가동하고 3월부터는 간부공무원들과 함께 민생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다. '새바람 행복버스'를 타고 시·군 현장을 찾아 나선 지 몇 달. 매주 한 번꼴로 다니다 보니 어느덧 12개 시·군 지역, 반현점을 돌았다.

사전 시나리오 없이 진행되는 간담회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생긴다. 울진에서 만난 한 어민은 강원도와 해상 경계지역 문제를

지적하며 호통을 치셨다. 도지사가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담당 국장과 과장에게 즉각 강원도에 확인시켜 협의를 이끌어 냈다.

포항에서는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다'는 학원과 체육시설업계의 이야기를 들었다. 김천에서는 공용버스터미널에서 멈춰선 버스만 바라보는 교통·운수업계를 만났고, 경주에서는 코로나 이후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의 한탄을 들었다.

정책은 있지만 사각지대에 놓여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이 적지 않아 현장에 가지 않으면 모르고 넘겼을 일이 수도룩하다. 우리 도민들은 어려움을 참고 이겨내는데 이골이 나서 힘들다 말하기도 꺼리는 편이다. 그런데도 이 정도면 도대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싶어 지사로서 어깨가 무겁다.



특히 경산에서 외식업계의 눈물 섞인 하소연을 들으며 수도권 중심의 방역대책만 믿고 기다리다가 지역경제는 진짜 피눈물 흘리겠구나 싶어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때부터 중대본 회의 때마다 지역 실정에 맞게 방역을 하자고 목청을 높였다. 체면은 중요하지 않았다. 서울과 울릉도를 어떻게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느냐, 필요한 곳은 '핀셋관리'하겠단다.

경북을 믿고 맡겨달라고 설득을 하고 또 했다.

끈질긴 설득 끝에 지난 4월 26일부터 인구 10만 명을 넘지 않는 12개 군 지역에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해제하는 '경북형 거리두기'를 시범 실시했다. 시행 한 달이 지난 지금,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평가다.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은 조금씩 북적이기 시작했고 카드 사용도 눈에 띄게 늘었다. 무엇보다 식당 사장님들이 "나라에서 주는 보 조금보다 훨씬 더 득이 되네"라며 엄지를 치켜세운다. 이에 따라 5월 24일부터는 영주시와 문경시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시범실시 초기에만 해도 대한민국이 경북을 주목하고 있으니 혹시나 확진자가 쏟아져 나올까봐 노심초사했다. 허나, 기우에 불과했다. 경북이 어떤 곳인가. 코로나19 위기를 제일 먼저 겪었지만 희생과 헌신의 경북 정신으로 희망을 만들어 온 곳 아닌가. 이번에도 우리 도민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위기극복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다.

도지사가 찾아간다고 해서 당장 경제가 살아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않는다. 그런 걸 기대하는 분들도 없다. 그래도 행복버스를 타고 현장을 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다. 민생의 손을 따뜻하게 잡는 것,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함께 하고 있다는 마음을 전하는 데 있다. 매 현장마다 "우리 이야기를 와서 들어주는 것만으로 큰 힘이 된다, 고맙다"고 말해주는 도민들이 있어 오히려 힘을 얻고 돌아온다.

지난 몇 달 동안 생존절벽에서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났다. 하지만 포기보다는 이를 악물고 이겨내려는 도민들의 의지도 읽었다. 죽을 힘을 다한다면 못 해낼 일이 없다는 사중구생의 각오로 도움이 필요한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아내 지원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생각이다. 새바람 행복버스는 이번 주도 행복을 신품 어려운 도민들을 찾아 현장으로 간다.

장지수 기자

##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전국 민생투어 11번째, 영천공설시장 찾아

### 22일 '희망배달트럭', "으랏차차! 국민의 바다 속으로 가자"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문제인 정부에서 가장 힘겹고 고생이 많은 곳이 공설시장 상인들로 이제 곧 그 끝이 보인다"며 "그동안 잘 버텨 주어서 고맙다"고 인사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22일 희망살리기 전국 민생투어 현장인 영천공설시장을 방문해 김용학 영천공설시장 상인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서민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파악해 전통시장을 살리는 정당이 되겠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포항오천시장을 시작으로 한 조원진 대표의 민생투어 영천공설시장 방문은 '희망배달트럭' 2주차 11번째 순서다. 앞서 조 대표는 이날 오전에도 성주 재래시장과 구미 선산시장에서 "무능한 문재인 정권이 초래한 경제파탄 때문에 자영업자와 서민들만 하루하루 고통을 받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

께 우리공화당이 '희망과 용기를 배달한다'는 것이 이번 민생투어 배경이다.

특히 조 대표는 유달리 호국의 성지 영천을 챙기는 모습이다. 지난 6일 국립영천호국원 영천대첩기념탑을 참배한 후 16일만에 또다시 영천공설시장을 찾아 "작은도시 22가구 돌배기 상인들이 전국 돌배기 시장의 80%를 차지한다"며 영천의 명물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 6일 영천 방문에서는 포은 정몽주 생가 영천임고서원에 들러 포은 선생 '단심가'를 문재인 정권 투쟁과 당원 단결의 아이콘으로 삼았다. 조 대표의 부친도 6.25 전쟁 희생자로 국립영천호국원에 안장돼 있다.

특히 이날 영천민생투어 후 조 대표는 오후 5시 30분에 영천시청 정문앞에서 문화공연을 펼치며 영천을 알뜰하게 챙겼다.

이번 조 대표의 민생투어는 "거짓 촛불로 탈취한 친북주사파 문재인 정권이 망친 대한민국 경제의 실상을 파악하고, 청년·서민·자영업자들과 고통을 함께하며, 국민의 꿈과 희망을 살리기 위해 국민과 함께 땀 흘리면 서로 소통하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국민들이 내로남불, 무능한 문재인 주사파들의 실체를 안 만큼 이제 그 끝이 보인다"며 내년 3월 대선을 겨냥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부터 4년 동안 아스팔트에서 변함없이 불법탄핵을 주장했던 조 대표는 "우리공화당이 그동안 즐기게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과 문재인 정권 퇴진 운동을 펼쳤는지를 국민들에게 그 정당성을 반드시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그러나 "종북주사파와 문재인 정권 퇴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야권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본지 독자께... 영천신문 7월 약 두 달간 휴간 공지

본지 영천신문 지면은 7월 1일부터 약 두 달가량 휴간할 예정입니다. 알려드립니다.

휴간 사유는 영천시에 대한 본지 비판기사를 이유로 영천 시로부터 극심한 탄압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천시는 공무원들이 앞장서 SNS등을 통해 본지를 양아치, 기레기, 거짓기자 등으로 명예를 실추시킴과 동시 3년여 동안 광고를 배제하며, 총무과에서는 공무원들에게 본지 신문 절독을 독려하고, 또 일부 읍면동에서는 실제 본지 신문 구독을 취소하는 등 본지 영업과 업무까지 방해하는 등 전

방위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본지가 영천시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거부하자 재판으로 최기문 영천시장과의 '불공정 인사관련 기사' 시시비비를 가려야 해 부득이 법정 재판을 위해 당분간 휴간하기로 했으니 독자 제위께서는 양지 바랍니다.

다만 인터넷 영천투데이에는 정상적으로 운영하오니 실시간 영천소식은 영천투데이에서 무료구독 하시기 바랍니다.

또 본지가 주관하는 이번(본지 1번) 자유의 학도병상 설치 신청 거부하는 영천시 복지정책과 담당, 과장 및 문화관광국

장, 부시장, 최기문 영천시장까지 직권을 남용했다는 저의 변호사 자문에 따라 고발조치 하는 등 영천시와의 법정 시비가 이어질 예정이어서 당분간 휴간이 불가피하게 되었음을 공지합니다.

(주)영천신문 대표 장지수

<이번 분기별 신문구독료 고지서는 본지 불성실 발행을 대신해 2021년 6월분 구독료를 면제하여 발송하오니 참고바랍니다.>



김문길 칼럼



김문길 교수

학술박사 문학박사  
부산외대 명예교수  
현) 한일문화연구소장

일본 속에서 조선역사를 찾는다②

김해에서 끌려간 여도공 백파선(百婆仙)②

<지난호 김해에서 끌려간 여도공 백파선(百婆仙)①에 이어>

정유재란은 일본군 전력 미약해진 상태에 승부의 가림도 없이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다. 확실히 임진왜란 때 우리 군대는 힘이 없었다. 군대라고는 해도 실재는 백성들이 창과 칼을 들고 나가 싸우는 게 고작. 일본은 임진왜란을 일으킬 당시 오랫동안 전쟁을 했기 때문에 조직과 정신무장도 잘 돼 있었다.

그러나 조선 조정엔 당파싸움에 빠져 왜적이 부산포까지 개미떼처럼 밀려오는 것을 전혀 몰랐다. 김효원이 이끄는 동인과 심의겸의 서인으로 갈라지고, 다시 동인은 남인과 북인으로,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사색당파 대립이 격화되니 어디 왜적을 막을 준비가 되어 있었겠는가. 동래성이 이들 만에 함락되고 왜적이 쳐들어온 지 몇 달 만에 선조는 피를 토하는 피난길에 올라 왜병은 조선의 위력을 아이들 소꿉장난 줌으로 비유했다.

일본은 10만 조선 기술자들을 잡아갈 수 용시키기가 힘들어 기술이 적은 사람은 유럽 상인들에게 팔기까지 했다. 기술이 뛰어난 사람은 도쿠가와 신정부가 들어설 때까지는 각 지방 왜장들의 성내에 살았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조선 포로인 수용대책안을 세우면서 각 지방에 도자기를 만드는 가마터와 도공들이 모여 사는 거주지가 정해졌다. 그것이 당인정(唐人町)이다. 당인정은 조선인들이 사는 촌이란 뜻이다. 임진왜란 때는 조선을 당국(唐國)이라 했다. 당인정은 지금도 사가(佐賀)현을 비롯해서 규슈지방, 주부(中部)지방 등 각 지방마다 하나씩 옛 지명 그대로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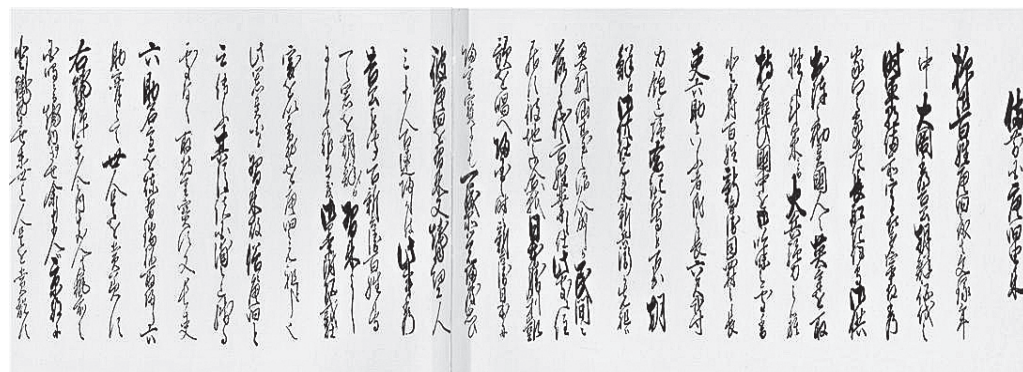
김해에서 체포되어간 백파선 부부도 나베시마 진군의 왜장 고토 이에노부의 손에 끌려가 사가 현 당인정에 살다가 도쿠가와 막부의 정책과 사가현 성주 나베시마의 명령으로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 지금 사가현 다케다(武田)정 구로무다(黒牟田)로 옮겨갔다. 사가 시 당인정에서 버스 편으로 30분 거리이고 JR선(옛날 국철)사가 역에서 나가사키(長崎)행을 타고 20분 정도 가면 다케오 온천역이다. 다케오 온천역에서 다시 버스를 타고 구로무다에 가면 400년 전 백파선 부부가 도자기를 만들던 곳이 있다.

지금도 그의 13대 후손이 경영하고 있다. 마루타 다카아키라(丸田隆彰)라는 40대 중년 남자이다. 마루타씨는 400년 전에 백파선 선조가 도자기 만드는 백토가 이곳에 있어서 도자기를 시작했다고 하면서 백파선이 도자기를 만들어 굽던 가마터로 안내해주었다.

■ 백파선 가마터를 이어온 후손

가마굴은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과 같다. 옛날 선조들은 도자기를 구울 때 한국식으로 제사를 지내고 도자기를 만들어 가마에 넣는다. 가마는 일본어로 「노보리 가마」라 한다. 노보리는 우리나라 등요(登窯)가마터라 한다. 도자기를 굽기 위해 장작에 불을 붙이기전 돼지 머리와 시루떡을 만들어 놓은 제물들이 우리나라와 같고 도자기가 잘 굽히도록 한국말로 된 제문을 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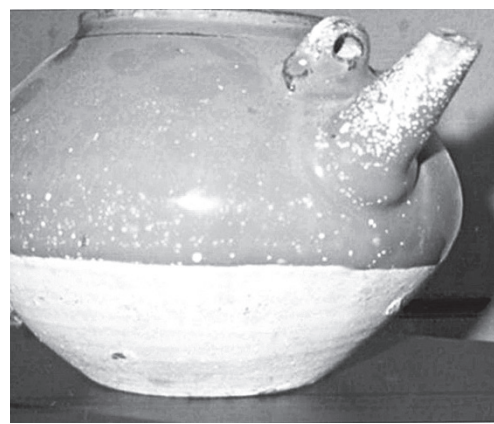
『일본은 조선인 거주지 당인정(唐人町)에 가마를 灣들었다』  
일본 조선인 거주지에 당인정(唐人町) 가마터 만들어



예기술을 자랑하니 그 이름도 각처마다 다르다. 야마구치(山口)에 가면 하기도자기(萩焼)가 있고 북규슈에 가면 우에도도자기(上野焼)와 다카토리도자기(高取焼)가 있고 사가현에 가면 가라쓰도자기(唐津焼)와 아리타도자기(有田焼)가 있고 나가사키에 가면 미카와치도자기(三川内焼)와 하사미도자기(波佐見焼)가 있고, 구마모토에 가면 야시로도자기(八代焼)가 있고, 가고시마(鹿?島)에 가면 사쓰마도자기가 있다. 이들 도자기는 일본 규슈지방을 대표하는 유명한 도자기인데 일본에서는 주로 도자기라하면 규슈 지방의 도자기를 말한다. 이는 임진왜란 때 잡혀온 도공들이 주로 이곳에서 생활했기 때문이며

였다고 전해온다. 지금도 한국식으로 제사를 지내지만 신에게 비는 말은 일본어로 하고 있다. 당시 포로로 끌려간 도공들의 풍습과 의식은 이곳뿐만 아니라 일본 각처에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포로로 잡혀간 도공들이 각처에 분산되어 오늘날에도 세계적인 도



도자기는 각기 재료가 다르고 만드는 기법과 색채도 다 달랐다

■ 백파선의 도자기

규슈지방에서도 우리나라 도공들이 전해준 도자기 문화가 가장 많이 발달하고 도자기로 가장 유명한 곳은 사가현이다. 원료가 가장 풍부한 곳은 사가현 아리타(有田)이다. 아리타라는 명칭도 도자기의 재료가 풍부한 곳이라는 뜻에서 우리나라 도공들이 붙인 지명이다.

조선시대의 유명한 백자는 그 종류가 다양하다. 그리고 도자기에 관한 지식이 풍부하지 못하면 무슨 원료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작품이 완성되는지 식별하기가 어렵다. 사가현에서도 백자를 구워내는 도자기 가마터가 사가 현 이만리(伊萬里)도자기, 사가현 다케오 백파선의 구로무다도자기, 이삼평의 아리타도자기 등 세곳이 가장 대표적이다. 그러나 세 곳이 다 특색이 있고 점토라든가 색채 등이 다르다.

다케오 구로무다의 백파선 이조백자는 아리타의 이삼평 이조백자에 사용되었던 원료와 다른 것이다. 구로무다 백파선의 백자는 백토를 가지고 1,000~1,300도의 열을 가해 구워내고 이삼평의 백자는 도석(陶石) 즉 흰돌을 가루로 만들어 고열인 1,300~1,500도 이상 열을 가해 구워내는 것이다. 백토를 원료로 쓴 백파선 백자는 도자기를 두들겨보면 쇠소리가 나고 이삼평의 백자는 연한 소리가 나는 것이 특징이다.

이삼평의 도자기는 색상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면이 옛보이나 백파선의 도자기는 순박하고 어두운 면이 있어 당시 일본 서민풍이 옛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백파선은 찻잔이나 주전자같은 일상 생활도구를 중점으로 만들었고 이삼평은 주로 접시와 같은 상류사회 무사계급 풍에 맞는 백자를 구웠던 것 같다.

이삼평은 초창기부터 나베시마 왜장의 권력에 순응하여 그가 원하는 작품을 만들지 못하였다. 그래서 무사들이 정신이 가득 담긴 그림을 그린다든가 무사들이 필요로 하는 작품만을 만들었다고 한다. 또 이삼평은 사가 현 성주 나베시마의 손에 끌려온 500여명을 통솔하는 책임자로 임명되어 도공들을 돌보는 직책을 맡았던 자이지 훌륭한 도공은 아니었다고 평하는 사람들조차 있다.

특별기고



김유미 소설가

소설가 김유미 작가가

바라보는 '소설같은 대한민국' (49)

내년 대선에서 우익의 어떤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대한민국은 빼제될 수 밖에 없다. 어쩌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때 보다 더 혼란스러운 사회가 될 것이다.

민노총과 전교조를 필두로 다시 촛불이 등장하고 본격적인 사상투쟁이 전개될 것

이다. 흑세무민(惑世誣民)한 국민들은 좌익이 장악한 뉴스와 선동에 놀아날 것이며,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좌우의 대립으로 엉망진창이 될 것이다. 이런 현상은 일시적이 아니라 좌와 우 하나가 죽어나갈 때까지 이

정치가 후퇴해야 자유대한민국이 산다

어질 것이다. 이쯤되면 경제도 망가지고 산업 전반이 고전할 것이다.

이런 망국의 현상을 막으려면 정치를 후퇴시켜야 한다. 멀게는 60년 전으로, 가깝게는 40년 전으로 후퇴시켜야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 강력한 자유독재만이 좌익의 독세를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그

럴려면 군대를 동원해야 한다. 먼저 군대를 좌익 일색의 지휘관들을 전면적으로 물갈이하고 우익화된 군대로 하여금 쿠데타가 일어나도록 종용한다. 그래서 군대가 3부를 장악하고 국회 해산, 언론 통폐합, 민노

총 전교조 전공노 등을 해체한다. 모든 정치적 행위를 중단시키고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좌익 색출을 단행하고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킬 방법을 모색한다.

좌익이 진멸될 때까지 군대가 과도정부를 구성하고 군사독재를 실시하지 않으면 좌익을 종식시킬 수 없다. 어떤 누가 대통

령이 되든지 이런 방향을 모색하지 않으면 그 역시 탄핵을 당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것이다. 과연 권력을 쥔 자가 욕심을 버리고 권력을 군부에게 내어줄 자가 있겠는가. 어쩌면 이 글이 필자의 망상일 수 있겠으나 필자가 제시하는 이 길로 갈 수 없다면 우리들은 분명히 사회주의국가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다.

과연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필자가 말한대로 군부를 물갈이 할 때까지 한시적 대통령직을 용인할 인물이 있는가? 자유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1961년 5.16 군사혁명이나 1979년 12.12쿠데타 둘 중 하나의 길로 가야한다. 정치가 과거로 후퇴해야 자유대한민국이 산다. 필자의 이 글은 세월이 지나면 두고두고 회자될 것이다. 이 글이 망상이 아님을 실감할 때 쓰임에는 우리들은 이미 사회주의국가에서 살고 있을 것이다.

동정

농업 도매시장 유통개선 필요



이만희 의원은 새 유통환경과 소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농산물 유통 공영도매시장의 기능과 역할이 개선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일 여의도 CCMM빌딩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공영도매시장 기능 안정화 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농업인이 주인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람산업 공존시대... 미래 일자리 찾아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의 정책 자문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23일 도청 호국실에서 처음 개최된 '경상북도 미래 일자리 자문위원회'에서 이같이 천명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 인간의 노동력을 로봇이 대체할 것으로 예측 예고했다.

영천 제1호 다함께 돌봄센터 개소식



최기문 영천시장은 24일 오후 3시 문외동 LH센터빌딩 내 영천 제1호 다함께 돌봄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돌봄센터 아동으로부터 감사의 편지와 꽃다발을 전달 받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앞서 최 시장은 또 23일 신녕버스터미널 금호~청통~신녕 간 공공형버스 운행 개통식에 참석해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중교통환경 개선"을 약속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



이승울 청도군수는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인접 국가뿐 아니라 범세계적 위협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일본 정부의 결정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 군수는 23일 일본의 이같은 결정을 규탄하는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하고, 지난 4월 13일 후쿠시마 원전에서 배출되는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2023년부터 30년에 걸쳐 해양 방류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공식 결정을 비난했다.

영천시의회 제217회 임시회 폐회



조영제 영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22일 제217회 제1정례회를 폐회하고 8일간의 회기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조 의장은 △영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농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 2건은 수정 가결하고, 그 외 19건의 의안을 원안가결했다.

2020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 자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은 모두 원안승인했다. 이날 조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 21일 코로나19 확진 추가 1명 보건소, 백신접종 거리두기 지침 지키지 않아

영천시 105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달 들어서 18번째 확진자다.

영천시와 보건소는 21일 자가격리 중 검사 결과 이날 확진됐다고 밝혔다. 영천시는 지난 15일 104번째 확진자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중이라는 외에 어떤 정보도 알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본지 취재 등을 종합해 보면 해당 확진자는 지난 6월 4일 아스트라제네카 1차 백신접종을 마친 화남면 소재 60대로 알려졌다. 1차 백신접종을 마친 후 11일 만에 확진됐다. 보건당국은 백신접종 후 면역력 형성기간을 약 2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확진자는 지난 학원 및 학교발 확진자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6월 3일까지 영천시는 지역 만60세~74세(47년생~61년생)까지 접종예약을 받아 6월 4일부터 접종을 실시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1일 영천시보건소는 생



지난 11일 코로나백신을 맞기위해 영천시생활체육관 앞에 모인 시민들이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고 밀집해 "영천시가 코로나를 예방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확산시키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사진=본지 DB>

활체육관에서 60세~74세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하면서 1차 접종대상자 400명과 2차 접종대상자 500명 등 900명에 대한 분산배치 등 인원통제가 이뤄지지 않는 등

거리두기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한때 접종대상자들로부터 "코로나19 예방이 아니라 확진자 양산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을 받은바 있다.

장지수 기자

## 영천시, 양성평등기금 존속 필요 있나?

### 의회 - 학부모단체 손 들어줘 전국학부모단체, 시의원 면담 시청 정문서반대 집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영천대표, 김우진)이 지난 21일 영천시청 정문앞에서 연일 양성평등기금 존속 여부를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2일 영천시의회가 제217회 임시회에서 영천시의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시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영천시는 종전 양성평등 기금(3억원)을 조성한 이자수익으로 매년 지역 4~5개 단체에 약 1500만원을 지원해 왔다. 이 기금은 올해 12월 31일이 만기로 영천시는 2026년 연말까지 존속을 위해 제217회 영천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해 연장 승인을 받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단체 등은 "양성평등을 이유로 실제 성 소수자를 위한 '성평등'에 악용되고, 또 당초 법의 취지에 반해 엉뚱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시의회를 방문해 항의하는 등 연일 양성평등 기금 폐지를 주장하며 집회로 대신된 계몽에 나섰다.

이들은 "영천시 양성평등 기금이 오히려 남녀갈등을 유발하는 단초가 될 수 있고, 한국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초등학교 등 교육에 포로노 같은 성교육에 활용해 성평등을 조기 성애와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며 "이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본지 취재 결과 최근 영천시 양성평등기금 운용사례를 보면 매년 1천만원으로 지역 여성단체협의회, 담나무미스토리텔링, 새마을 지도자협 등 3~4개 단체가 예산지원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사용 내역도 중국문화생활 및 중국어 강좌, 동화연구교실, 우리전통음식(장류) 이어가기, 천연염색 소양교육 등 대부분 양성평등과 관련이 없는 형식적 예산낭비인 것으로 분석돼 기금 존속여부에 대해 영천시의회의 심도 있는 결정이 필요해 보인다.

또 경북도내 23개 지자체 중 57%인 10개 지자체가 양성평등기금을 운영하지 않고 있고, 전국적으로 점차 운용 숫자도 줄어들고

있어 예산사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영천시의회 한 관계자는 "이번에 기금 존속을 위한 집행부 제출 '영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에서 일단 보류 의견이 있어 다음 임시회에서 신중하게 결정할 사안이다"며 일단 학부모단체의 손을 들었다.

한편, 이번 양성평등기금 존속을 위한 영천시의 동 조례(일부) 입법예고기간 지역 각 종교계와 단체 등에서 양성평등 기금 존속 반대 및 폐지에 대한 민원 776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져 영천시의회 보류 결정에 힘을 보탤다.

장지수 기자

## 이만희 의원, 청도 "농촌협약"에 5년간 국비 최대 300억원 확보

### 청도군, 주민 정주여건 개선 지역경제 활력에 기여

이만희 국회의원(영천-청도·사진)이 청도 지역 농촌생활권 활성화와 주민 정주여건 개선에 힘을 보탤다.

지난 17일 22일 국회 이만희의원실에 따르면 "경북 청도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농촌협약사업'에 선정돼 최대 국비 300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면서 이 의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농촌협약은 정부와 지자체가 쾌적하고 안락한 농촌공간 조성을 위해 계획 수립 단계



에서부터 함께 협업하며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라는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 12월에 처음 도입된 사업이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청도군은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한 보완 및 승인 절차를 거쳐 금년 말까지 농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한 후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총사업비 430억원(국비 최대 3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동안 이만희 국회의원은 "농촌협약 선정

을 위해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청도군과 긴밀히 협의해 왔다"면서 "경북도를 비롯한 중앙부처 등에 협조와 지원을 요청한 결과"라고 밝혔다.

청도군 농촌협약사업은 금천생활권(금천면, 매전면, 운문면)을 중심으로 농촌정주여건개선사업 17개, 농촌경제활력 제고 사업 6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9개 등 총 32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단위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 ▲문화 및 생태 관광산업 활성화, ▲귀농귀촌 청년역량 강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지수 기자

세우



윤영민 세무사  
세무회계 바로

상속세 절세 비법

기한내 신고해야-가산세 없이 3% 추가 감면

사전 증여-증여 후 부동산 가치 상승 우려되면 증여 부러

상속공제 활용-기초공제,인적공제,일괄공제 중 큰 금액

몇 년전까지만 해도 상속세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었지만, 최근 들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공제를 받아도 상속세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졌다, 오늘은 상속세의 절세방안에 대해서 알아본다.

먼저 상속세는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모든 신고납부세목이 그렇지만,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가산세가 없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 시에는 신고세액의 3%를 공제해준다. 그러나 기한 후에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일 때 납부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한다. 그리고 무신고시에는 기초공제와 자녀공제 및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미성년자 공제와 같은 인적공제는 배제되고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받게 되어 불리하다. 또한 부동산의 경우 시가로 평가해도 상속공제액이하라서 상속세를 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추후에 재산 처분시점에서 취득가액이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가 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진다.

다음으로 사전증여이다. 피상속인이 배우자 등 상속인들에게 10년 이내에 사전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다. 그리고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합산한다. 이러한 사전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할 때 증여받은 시점의 재산가액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부동산 등 향후 가치가 상승할 것 같은 재산은 미리 증여하는 것이 절세방안이 된다.

마지막으로 상속공제의 활용이다. 상속공제는 기본적으로 기초공제와 그 밖에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을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공제한다. 다자녀와 장애인자녀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보다 다른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더 크므로 유리하다. 그러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는 받을 수 없고, 인적공제 합계만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거주자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배우자 법정 상속분 한도 이내로 받을 수 있다.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상속세 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의 분할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외의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최대 2억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동거주택 상속공제도 지분한도내에서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세는 망인의 전체 재산에 대해서 계산되므로, 사전에 절세방안을 세워놓으면 나중에 발생할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TEL 054-334-0500 FAX 054-334-0501  
E-MAIL ctayym87@naver.com

김섭 변호사의 法鏡



대표 변호사 김섭  
성광합동법률사무소

부부 재판이혼-면접교섭권 강제 가능한가?

**문** 저는 아이 엄마와 재판 통해 이혼 하였습니다. 판결문 아이 양육은 엄마가 하되, 첫째 토요일과 셋째 토요일 한달에 두 번 제가 아이 면접교섭권을 갖고, 아이 엄마가 아이들을 저에게 데려다 주기로 했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아이들을 저에게 데려다 주어 아이들과 놀 수 있었는데, 그 후로는 아이들을 데려다 주지 않아 아이들을 통 볼 수가 없습니다. 면접교섭권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 면접교섭권이란 부부 사이에 이혼시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모 중 일방이 미성년의 자녀를 주기적으로 만나거나 전화·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다. 그 횟수와 관련해 부부간 합의나 가정법원 결정에 의해 통상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또는 그밖에 생일이나 입학식 또는 졸업식 같은 중요한 시기에 추가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혼은 부부 상호간 갈등이나 좋지 않은 사유로 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중 일방이 면접교섭권 있는 타방 부모에 대해 면접교섭을 방해하거나 면접교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중 일방이 면접교섭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면접교섭권을 가진 타방 부모가 이에 대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혼 단계에서 합의서나 판결 등에 면접교섭의

무 위반에 대한 위약금의 제재를 정해놓는 방법이다. 즉 부부간에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서 위약금으로 위반 1회당 얼마씩의 금전을 지급하도록 구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거나 이를 조정이나 판결에 반영해놓는 것은 면접교섭권의 이행확보수단으로 요긴할 수 있는 것.

둘째, 면접교섭권에 관한 판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다. 즉 가정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이나 심판,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 등에 면접교섭의무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면접교섭권자는 면접교섭의무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이행에 대해 일정한 기간 내에 면접교섭의무를 이행하도록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3호)

가정법원에서 이행명령을 내릴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게 되며,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부과의 제제도 고지하게 된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2항) 이러한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면접교섭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접교섭권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이나 가정법원 또는 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판사의 직권에 의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다만 면접교섭의무에 대한 이행명령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감치에 처해지는 제재까지는 받지 않는다.

귀하는 이미 면접교섭권을 확보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불이행하는 상태이므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그 불이행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도록 하는 방법을 취해 볼 수 있다.

☞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질의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변호사 김섭 법률사무소  
대구 수성구 동작대로 358-6, 성광빌딩 406호  
전화 053)755-7500

영천신문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장지수 | 인쇄인 ㈜중앙일보  
대표전화 332-2400 | FAX 335-6600 | E-mail ycn@yctoday.net  
구독료 : 월 5천원, 1년 6만원, 경상북도 영천시 호국로 17  
계좌번호 : 농협 301-0093-9954-51 (㈜영천신문)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사설

자유의 학도병상 영천에 세운다  
전국 제 1의 호국성지로 만들자

전국 제1호 자유의 학도병상을 영천시 화북면 정각리 정각삼거리 일원에 세우고 26일 제막식을 갖는다. (주)뉴스타운 학도병기념사업회 주최로 (주)영천신문이 주관하고, 나라지킴이교연합이 후원한다.

이번 학도병상 건립 취지는 군번도 없이 6.25 전쟁에 자발적으로 참전해 오직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기 위한 어린 소년·소녀들의 애국어린 충정심을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에게 전해 나라 사랑하는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첫 출발이다.

우리는 6.25 참전 학도병에 대해 그동안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다. 그들은 책과 연필 대신 2주간의 기본훈련만 마치고 허겁지겁 전선에 투입됐고, 북한군의 총공세에 저항해 마지막 방어선인 낙동강 전투에서 버텨내면서 맥아더의 인천상륙과 함께 북진의 교두보를 마련한 우리의 호국 영웅이다.

그런데 지난 2월 생존 학도병 윤월스님과 다수의 전쟁 경험자들의 증언에 의해 영천의 명산 보현산(해발 1,124m) 서남방향 400고지 영천(신녕)전투에서 1950년 8월 29일 학도병 3명이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당시 북한군 상위 계급)을 생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들에게 미안함과 애절함으로 눈물까지 흘려야 했다.

인천상륙작전을 위한 후방 교란작전으로 포항 장사상륙작전이 펼쳐졌고, 그곳에서도 772명의 어린 학도병이 투입됐다. 10대의 나이로 참전해 나라의 운명을 되살린 우리의 영웅이다. 이런 학도병을 정부는 정규군 6.25 참전용사에 비해 푸대접해 왔다. 아직 이들은 국가유공자 대접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위로할 때다.

앞서 영천시가 이같은 학도병상 건립을 조례제정을 이유로 두 차례 설치신청서를 반려하는 등 사실상 반대해 온 것은 유감이다. 영천시민회관 앞의 청년단체 시계탑과 도서관 앞 위안부 소녀상은 조례 없이도 허락하면서 영천신문이 주관한다는 이유로 설치서류를 반려했다면 더욱 유감이다. 속 사정은 영천신문이 영천시에 대해 우호적이지 못하고 비판기사를 쏟아냈다는게 반려 이유로 전해지고 있다. 최 시장은 영천신문의 학도병상 제막식 초청도 거절했다.

그런데 알고보면 반려 이유는 따로 있어 보인다. 최 시장은故 김대중 전 대통령시절 청와대 파견 근무를 거쳐 이어진 노무현 정권 시절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으로 있을때 1호 경찰청장으로 임명됐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끈끈한 인연이다.

특히 최 시장은 두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마하고 세번째에 영천시장으로 당선됐다. 그리고는 전 광주시장과 김두관 의원, 지금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차례로 불러들여 영천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특강을 이어갔고, 더군다나 국비확보를 위해 상경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지역 국회의원인 이만희 의원을 패싱하고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을 만났다. 지역 주의를 지직하는건 아니지만 지금의 나라 상황을 감안하면 이 때문에 최 시장의 좌편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 출생의 비밀을 밝히려는 뉴스타운과 영천신문의 논지를 달가워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자유의 학도병상은 좌·우 이념과는 구분해야 옳다. 또한 영천신문의 개인적 갈등 때문에 어린 자녀들에게 애국심의 혼을 불어넣어 줄 학도병상 건립의설치를 반대했다면 최기문 시장은 진정한 더불어민주당 사람임을 자처하는 꼴이 된다.

이런 가운데 영천은 호국의 성지로 불리면서도 정작 군사시설 등을 빨리 철수하라는 시민들의 성화에 공병대 일부가 이전하는 등 군이 오히려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쳐온 것도 사실이다.

나라지킴이교연합은 이번 자유의 학도병상 건립으로 영천을 전국 제1의 호국성지로 만든다는 영천신문의 뜻에 동참한다. 영천의 미래 먹거리로 영천시는 별과 과일, 관광을 주제로 삼고 있지만 별은 없다. 과일 역시 전국에 밀리고 있는데다 부자 농촌을 구호로 하기도 우려스러운 미래 먹거리다. 바다나 풍광이 수려한 자연경관이 있는것도 아니다.

이제 방향을 바꾸어야 할 때다. 호국의 성지답게 영천에는 국립 호국원과 탄약창, 육군 제3사관학교, 공병대, 제2항공단 등 안강의 풍산금속(방산업체)과 더불어 군사시설이 주류를 이루는 사실상 군사도시다. 거기에 6.25 참전 기념탑과 전투메모리얼파크 등 호국 시설물들이 방사형으로 흩어져 연결성 부족으로 관광화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번 자유학도병상 건립을 계기로 호국원과 학도병상, 육군3사관학교 등을 묶어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의 봄·가을 호국성지순례코스를 만들겠다는 나라지킴이 교연합 아이디어를 본지는 적극 환영한다.

‘영천신문’의 인터넷판  
‘영천투데이’를 클릭하면  
오늘이 보입니다  
Best!  
홈페이지(영천신문과 공동)  
www.yctoday.net  
기사제보 : yctoday1@naver.com

국내 제1호

6.25전쟁 71주년



# 자유 의 학도 병상 제막식

**꼭 같아야 할 빛이 있습니다!**

나도 당신도. 우리 모두가 같아야 할 빛이 있습니다.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기억 어느 한 편에 사금파리처럼 박혀 있어  
 때가 되면 빛바랜 흑백 사진처럼 잠시 떠올랐다 다시 잊혀지곤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펜과 책을 던져놓고 전선에 나섰습니다.  
 꽃 같은 젊음, 젊음의 붉은 피를 이 땅에 부리셨습니다.  
 5만여 6.25참전 소년 소녀 학도병(학도의용군)  
 그들의 용기있는 희생과 헌신이 오늘의 자유대한민국을 지켰습니다.  
 잊혀진 영웅들 그분들에게 꼭 같아야 할 빛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그 빛을 같아야 할 때입니다.

- 일시 : 2021년 6월 26일(토) 오후 2시
- 장소 : 경북 영천시 화북면 정각리 604-1 내고향별빛마을
- 주최·주관 : (주)뉴스타운 부설 학도병기념사업회, (주)영천신문
- 후원 :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영천투데이,  
뉴스타운TV 유료 구독자 전체



※ 대중교통 : 영천터미널 450번, 451번(약 1시간40분 소요) 정각삼거리 하차 ※ 문의 및 안내 : 02-978-4001  
 당일 문재인父 문용형을 생포한 생존 학도병(윤월스님) 증언이 있습니다.